

---

1999年度行政事務監査 企劃經濟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被監査機關 서울産業振興財團

---

日時 1999年11月30日(火) 午前10時  
場所 企劃經濟委員會會議室

---

(10時 52分 監査開始)

○委員長 鄭韓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제36조, 同法施行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에 의하여 서울産業振興財團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地方自治法 제36조제5항 및 同法施行令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오니 관계자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産業振興財團 代表理事와 經營支援室長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관계자는 기립하시고, 財團 代表理事는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代表理事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代表理事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代表理事 鄭貴來; (宣誓)

○委員長 鄭韓植; 계속해서 代表理事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代表理事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代表理事 鄭貴來; 존경하옵는 鄭韓植 위원장님, 그리고 企劃經濟委員會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재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저희 재단으로서는 출범 2차년도로서 기존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추천업무와 창동전시장 운영 외에 지난 4월 1일에는 잠실전시장을 인수하였고, 5월 1일부터는 서울시에서 외국인투자유치상담실과 투자유치업무를 인수하여 APEC 투자박람회와 ASPAT'99 SEOUL 서울관을 운영하였고, 5월 3일에는 애니메이션센터를 개관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서울벤처타운을 개관해서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부임 초기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재단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저희 재단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經營支援室長 張錫明, 總務部長 高峯雲, 經營企劃팀長 吳喆煥, 資金支援팀長職務代理 河憲必, 마케팅支援팀長 崔淳植, 애니메이션센터팀長 崔銀敬, 벤처企業支援팀長 金善洪, 海外協力팀長 孫京淵)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계속해서 서울産業振興財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代表理事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代表理事 鄭貴來; 우선,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에 있어서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만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代表理事, 일반현황은 익히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으니까 업무실적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代表理事 鄭貴來; 감사합니다. 그러면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報告)

서울産業振興財團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다시피 금일에는 3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産業振興財團에 대해서는 12시경에 일단 끝내고 중식한 후에 信用保證組合을 하고, 그 다음에 西南圈農水産物都賣市場建設企劃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鄭圭鎭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일단 2000년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실적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시간관계상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 1인당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根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代表理事를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吳世根 委員; 吳世根 委員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업 용자 저조한 이유가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업 용자 이율도 시중금리에 따라서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代表理事 鄭貴來;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목표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우대금리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용자기금 이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대금리는 보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8%대에 일반은행에서 용자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금리라고 해서 8%라고 하는 것이 큰 메리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금확보, 기금확보에 코스트를 市 차원에서 어떻게 낮추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7.2%에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약 1% 미만의 수수료를 은행의 0.8% 정도의 취급수수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트를 낮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보다 한 1% 정도 낮춘다면 7% 정도로 낮추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손실은 市 재정에서 충당하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 사장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市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재정에서 보조를 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정부에서 7.2%라는 이율을 적용해서 이것을 용자해 줍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그 돈을 市에서 얻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市 재투자입금리가 7%이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수수료가 1% 해서 8%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政府 재투자금은 차입금리가 6.5%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탁수수료 1% 해서 7.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7% 내지 6.5%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면 대출관리 위탁수수료를 좀 감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은행에서 상당히 아마 난색을 표명할 것 같고요.

그래서 市가 政府에 차입금리 자체를 다운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그 다운에서 오는 적자만큼은 재정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몇 년 용자입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고요,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이 부진한 사유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면 싸구려 제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이 부진하다고 생각되고, 요사이 케이블TV를 통하여 홍보가 되고 있지만 싸구려 제품이라는 불신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社長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代表理事 鄭貴來;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창동 전시장에서 저희들이 전시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할 경우에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선별을 해서 판촉전을 벌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비수기에 저희들이 의류 세일행사를 그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류 바자는 주로 재고품 처리를 하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렴한 싸구려 물건을 판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가급적 의류 바자행사를 줄이고, 기획전시쪽으로 전시사업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의류 바자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압력도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의 위상을 위해서, 본래의 전시판매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의류세일을 하는 바자회는 횟수를 줄이고 기획전시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吳世根 委員; 비수기에 바자회랄지 싸구려 판매를 하게 되면 社長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실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이 많은 타격을 봅니다. 시민이 그 상품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代表理事 鄭貴來; 그런 예가 더러 있었습니다.

○吳世根 委員; 비수기라고 해 가지고, 물론 전시하는 우수 제품이 많이 판로가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철이 지나거나 유행이 지난 제품들을 판매하다 보면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이 사실은 상품의 가치를 시민으로 하여금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나 많은 PR을 해서 바자회나 싸구려 제품을, 시장바닥의 노점상과 같은 그런 상품판매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社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代表理事 鄭貴來;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의류세일 바자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요. 저희들이 우수 제품만을 선별해서 판촉전을 할 수 있도록 전시판매 사업방향을 적극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吳世根 委員;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개관 운영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면 상품성이 있어야 애니메이션산업

의 활성화가 될텐데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代表理事 鄭貴來; 지금 吳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5월 3일에 애니메이션센터를 개관해서 지금까지는 자리매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앞으로는 吳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품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미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각각 8편씩 사전에 제작계획을 응모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기획하고 있는 창업자들에게는 만화의 경우에는 500만원,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800만원씩 해가지고 총 6,400만원을 제작비로 사전 지원을 했습니다.

만화는 오는 12월 20일에 콘테스트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만화업자들의 작품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콘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내년 1/4분기중에 심사를 해서 우수작품을 선정될 하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만화의 경우에는 내년 1월에 불란서에서 하는 만화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을 시키고 그 작가를 참관을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6월에는 애니메이션에서 선정된 우수작품을 가지고 앙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도시에 출품을 시켜서 거기에서 국제전본시에 내놓아가지고 외국에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이 모색해 주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제작지원에, 물론 저변확대도 중요하겠지만 창작하는 분들에 대한 제작지원에 더 자금과 지원을 투입을 해서 우수



한 상품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吳世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韓植;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吳尙俊 委員님.

○吳尙俊 委員; 지금 중소기업 용자와 관련해서 연말까지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 용자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10월말로 정리된 자료는 있는데 금년말까지 어느 정도 기금이 사용될지?

○代表理事 鄭貴來;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吳尙俊 委員; 그리고 애니메이션센터의 교육과정이 정규과정, 특별과정이 있는데 제가 자료로 받은 각 과정을 보면 정규과정하고 특별과정을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기간도 굉장히 짧고.

자료 주신 것 중에서 123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각 과정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정규과정이 어떤 것입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지금 정규과정은 애니메이터 양성과정으로서 만화인 크로키교실이라든지, 크로키교실이 수요일반하고 토요일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 드로잉교실 해서.....

○吳尙俊 委員; 네 가지입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네.

○吳尙俊 委員; 수요일반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담당자가 직접 대답을 하시지요.

○애니메이션센터팀장 崔銀敬; 애니메이션센터팀장 崔銀敬입

니다.

지금 吳尙俊 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규과정은 센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과정은 수시로 열리면서 외부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吳尙俊 委員; 그 네 가지는 알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수요반, 토요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입니까?

○애니메이션센터팀장 崔銀敬; 네, 만화인 크로키교실은 수요일로 일주일에 한 번 하고요, 크로키교실은 토요일 한 번입니다.

○吳尙俊 委員; 만화드로잉교실은요?

○애니메이션센터팀장 崔銀敬; 만화드로잉교실은 일주일에 이틀 수업이 있고요, 애니메이터 양성과정은 주3회 수업이 있습니다.

○吳尙俊 委員; 주1회 만화인 크로키교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약 6 달간 진행되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애니메이션센터팀장 崔銀敬; 지금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 만화가 위주로 돼 있어서 크로키교실 수요반은 전문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4개월 과정이 계속 4개월, 4개월 연장이 되고 있고요.

○吳尙俊 委員; 그럼 이런 정규과정의 대상자들은 기존의 애니메이션 관련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대부분인가요?

○애니메이션센터팀장 崔銀敬; 네, 지금 정규과정은 기본 기초과정을 끝낸 사람들 수강을 받고 있고요, 특별과정이나 그 외 기타과정들은 초보자 및 일반들, 또 전문가들 나누어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吳尙俊 委員; 알겠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각 지방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춘천시 제일 빨리 시작한 것 같거든요, 춘천시. 그런데 춘천시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조사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이라도 하십시오.

○代表理事 鄭貴來; 네, 알겠습니다.

○吳尙俊 委員; 멀리 외국에 나가서 조사할 게 아니라, 안에서 벌어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창동 같은 경우 보면 일부 업체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종 업체하고 조인해서 주관을 할 경우에 그 업체들 대부분이 일반 유통회사지요?

○代表理事 鄭貴來; 유통회사도 있고, 또 생산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吳尙俊 委員; 그런데 지금 저희가 IMF 터지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사회가 케이블TV도 있고 인터넷쇼핑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과연 운영을 해서 상징적인 정치적 의미,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제외하고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재검토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차라리 수익이 남든 안 남든지 간에

전시판매장 운영을 아예 재검토해서 지양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부분을 자금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지금 할인매장화되는데 전시장 활용률이 80% 달성하고 못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의류할인점 많이 해서 당초 목표 80% 넘어서 90% 달성했다 그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시 産業振興財團에서 돈버는 의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장소도 예를 들어서 효창운동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업체들이 빌려서 여러 군데에서 다 합니다.

저는 이 전시판매장 운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선전효과밖에 없는 것이지 실질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원방향을 다른 부분으로, 한쪽에서는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케이블TV 이런 식으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지금 쇼핑몰 개념들이 국내에서도 서울 동대문, 남대문뿐만 아니라 각 지방도시도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상권형성이 안 되어 있는 전시판매장을 꾸역꾸역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전력을 쏟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백지에다 놓고 재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는데 대미투자유치단 14개 참여업체 리스트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14개 참여업체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별도로 체크를 해 주시고, 14개 참여업체 리스트를 업종, 자본금하고 매출이 있는 업체라고 하면, 창업업체가 아니라 기존업체라고 하면 매출이 있을 거니까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代表理事 鄭貴來;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亮漢 委員님.

○李亮漢 委員; 李亮漢 委員입니다.

고생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産業振興財團이 서울시 공기업의 일종입니까, 아닙니까? 형성 자체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공기업쪽의 하나입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비영리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산하 기업체죠? 그렇죠?

○代表理事 鄭貴來;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도부터 있었습니까,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재단 출범과 동시에 저희들이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부터입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용방법이 기업으로 얘기하면 중소기업기금사업부, 그렇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사업부, 예를 들면 자체가 팀으로 운영되고 있죠?

○代表理事 鄭貴來; 그렇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면 재단의 정신 자체가 기금을 활용한다면 기금의 수익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98년도 반영사항을 보면 전시장 판매만 얘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가. 전시장 수입 2억만 수입이 올라가 있어요.

○代表理事 鄭貴來; 자체수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뭘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그것은 市에 조성된 기금을 저희들이 위탁 관리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면 産業經濟局 中小企業課에서 나오는 그 자금입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그 자금입니다. 그 자금을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위탁관리만 합니까? 그러면 사실 産業振興財團 것은 아니네요?

○代表理事 鄭貴來; 저희들 기금은 아닙니다.

○李亮漢 委員; 이것을 해줌으로써 수수료 받으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수수료 받습니다, 0.05%.

○李亮漢 委員; 이것도 손익계산서 반영되고 있습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면 4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각 중소기업 자체들이 하기 힘든 것을 서울시가 대신 해 준다는 뜻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그렇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발전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소득을 다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수입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비용만 지출하는 것입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저희들 재단 자체의 설립목적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라는 기본 설립취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그러한 정책시안들을 저희들 재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경영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李亮漢 委員; 그런 식의 얘기가 된다면 언제까지든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예산지출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자립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금이 정확하게 9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92억원 가지고는 정상운영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0억원은 되어야 경상운영비가 자체조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조달은 물론 市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위탁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시사업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서 市에 자금의존을 하지 않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실비를 징수해서 이익은 남기지 않더라도 실비개념으로 서비스료를 징수해서 자체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매년 높여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결과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시설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데까지는 서울시가 자산투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애니메이션사업이라든지 벤처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독립 재산적 수입이 없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왜냐 하면 영구히 서울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전시장사업이라든지 애니메이션사업이라든지 벤처타운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수익력을 가져야 운영되는 것이지, 처음에 서울시가 해주는 이유는 어느 중소기업이 애니메이션 하면 그런 막대한 시설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투자 하는 것을 이용하면서 임대료나 수수료를 내면서 거기에서 일이 완성이 되면 완성된 상당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는 일방적으로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도와준다는 것은 벤처타운을 창립하는데 도와주고 애니메이션을 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지

만약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소위 서울시가 해 버리지 도와줄 것 뭐 있습니까? 성경말씀을 보면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産業振興財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 잡았으면 그 고기에 대한 소득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産業振興財團 사장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지원만 해 준다 이런 생각 같으면 이것은 존속의 가치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 채산을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물론 외국인투자 유치 관계에 대해서 해외업무는 정부에서는 KOTRA가 하고 있습니다. KOTRA의 운영방법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판을 짜주는 것이지 판을 짜주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가 소득을 가져야 됩니다. 재단법인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준다 그러면 사장님이 계속 있으실지 모르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이 産業振興財團이 존속하기 곤란하다 이거지.

그리고 제가 볼 때 0.15%를 받는 자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더 달라고 해서 운영에 대한 최소한도 필요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고 인적·물적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써간다는 얘기는 産業振興財團 존속의 유무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장래에 애니메이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는데 특별한 무엇을 내주어야 되고요.

그러면 예산도 다음 주에 와서 심의 또 받아가겠네요?

○代表理事 鄭貴來; 네.

○李亮漢 委員; 예산문제는 다음 예산 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니다. 이상입니다.

(鄭韓植 委員長, 吳尙俊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吳尙俊; 수고하셨습니다.

鄭圭鎭委員長님.

○鄭圭鎭 委員; 鄭圭鎭 委員입니다.

중소기업 전시운영이 지금 창동하고 잠실, 송파에 있는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죠?

○代表理事 鄭貴來; 네, 그렇습니다.

○鄭圭鎭 委員; 두 군데 입점의 자격기준이 있죠?

○代表理事 鄭貴來; 네.

○鄭圭鎭 委員; 자격기준이 엄격합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鄭圭鎭 委員; 들어오려는 업체는 몇 업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가 몇 개가 있는데 들어오려는 업체가 몇 대 몇 이나 됩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경쟁 대 수요? 지금 잠실은 금년 4월까지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4월 1일부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 5년간 운영을 해 왔었는데 당초 5년 전에 개관했을 때는 경쟁이 굉장히 션다고 합니다. 많이 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운영이 부실했던지 오히려 공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서 이것을 다시 활성화하는데 지금 총력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쟁보다는 공점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圭鎭 委員;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

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제품이 어떤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해서 입주자 자격기준을 갖춘 그런 업체가 선정돼서 입주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도자기 회사를 운영합니다. 옛날에 잠실전시판매장에 한 2년간 전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쌉니다. 계속 비쌌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장이라고 사람들은 몰려서 싸 줄 알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공점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엄격한 자격업체를 선정하고 심사해서 그분들 제품을 진짜 염가에 갖다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이 좋은 위치를 왜 이렇게 놀리는가 하는 것이 항상 거기를 들를 때마다 아쉬움이었는데 지금 창동이나 잠실전시장 내가 생산회사가 아닌 유통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유통회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선전하는 것을 신문에 끼워 넣는 찌라시를 이 창동 지역에도 엄청 뿌리고 있어요. 신문에 거의 들어옵니다. 그런 짓을 안 해도 되거든요. 우수한 제품을 갖다놓고 싸게 팔면, 시장보다 싸면 얼마든지 들어오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전시라고 서울시에서 해 놓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또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기준 업체를 넣어 놓고 그분들이 좀 생산을 의욕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입점업체에 대한 종합평가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입점업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우수 업체만이 들어가서 양질의 물품을, 또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중 물품보다 싸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것을 방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들한테 장사시켜 주는 서울시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서울벤처타운 설립 운영이 돼 있는데 개발제품에 대한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실적을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지요.

○代表理事 鄭貴來; 벤처기업에 대한 말씀입니까?

○鄭圭鎭 委員; 개발제품에 대한 해외판로 실적.

○代表理事 鄭貴來; 벤처타운은 지난 7월 1일부로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미국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절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큐베이터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제품에 대한 판매실적은 아직은 파악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이른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다음 회기 때는 저희들이 그 동안 제품개발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圭鎭 委員;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마케팅을 지원할 것입니까?

○代表理事 鄭貴來; 벤처 개발제품에 대한 해외 마케팅 말씀입니까?

○鄭圭鎭 委員; 네.

○代表理事 鄭貴來;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서울벤처박람회를 우선 국내에는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국내에는 판촉전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벤처기업 제품 해외 시장개척단을 구성을 해서 해외판로에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圭鎭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제품 판매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자격기준을 할 것이고, 어떻게 종합평가를 해서 떨어낼 업체는 떨어내고 다시 입점시킬 업체를 어떤 자격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많은 중소기업체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代表理事 鄭貴來; 알겠습니다.

○鄭圭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尙俊; 수고하셨습니다.

梁敬淑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敬淑 委員; 질의라기보다는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서울벤처타운은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빌딩계약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벤처타운 개관 및 운영에 지금까지 한 60여 억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과연 설립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철저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빌딩 선정과정에서 설문조사에서도 테크노마트21, 현대인텔렉스빌딩이 거론이 됐었고, 소프트웨어타운 조성관련 유관기관에 의해서도 이러한 빌딩들이 1·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産業經濟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빌딩들이 임대차료도 싸고 관리비도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아주빌딩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도 삼아빌딩이나 나라중금빌딩 이런 빌딩들에 이어서 가장 꼴찌 후순위에 있었던 아주빌딩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에 1차 계약을 할 때 비용과 2차 계약을 하면서 1차 계약 당시에 275만원이던 보증금을 5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저당설정도 최종적으로는 5순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3순위일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는 5순위 일수도 있습니다, 저당설정은.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평당 27만 5,000원이고, 월 임대료가 평당 1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관리비가 2만 4,200원입니다.

물론, 그 주변의 현 시세보다는 약간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저렴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50여 개도 되지 않는 입주업체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지요?

○代表理事 鄭貴來; 49개입니다.

○梁敬淑 委員; 나간 데도 있지 않습니까?

○벤처企業支援팀長 金善洪; 1개 업체가 성공을 해서 나갔고요, 1개 업체는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입주 자체가 어려워져서 못 들어왔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런데 이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효과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홍보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서울시가. 내용적인 내실을 기하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우선하지 않고 서울시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나치게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임대료보다도 관리비가 지금 훨씬 비싼데 45평의 경우에 임대료가 77만원인데 관리비는 110만원이고, 75평의 경우는 임대료가 128만원인데 관리비가 183만원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물론 다른 빌딩들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재점검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국개발투자금융이나 서울신용보증조합 이런 금융회사들을 상당히 많은 면적을 주면서 차지하게 하는 것들이 벤처타운을 운영하는 것과 관계가 깊은가? 그것이 약간 괴리이며 면적만 많이 차지하게 해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본위원이 49개 업체와 전화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해 보니까 불만이 없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 불만의 내용들이 임대료나 관리비가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라는 것은 거의 기본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고, 다른 벤처빌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슬라이드기기나 OHP, 화이트보드 같은 기본적인 기자재도 지원되어 있지 않은, 정말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이러한 빌딩을 세워 놓고 홍보만 할 줄 알고 잘 한다 라는 것만 자랑만 할 줄 알았지 업체 지원에는 거의 관심도 없다 그런 불만이고요.

또 이러한 기본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하려면 그 회사들이 각각 그 회의실에 이러한 시설들을 가지고 가야 된답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불만들이 있었고, 바이어들을 상대로 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그 내부가 잡다한 시설들, 그러니까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면

적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접대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웹 전용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벤처타운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전용선도 깔아놓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서버컴퓨터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런 시설도 갖추지 않고 무슨 벤처타운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신비로 매달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로 선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의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이런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하고 있고, 12시 이후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든지, 음식물도 반입할 수 없다든지, 주차장을 월정요금제를 허가하지 않는다든지, 또 입주업체의 평균 평수, 그러니까 입주평수와 전혀 무관하게 업체당 주차는 1대 밖에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벤처업체들이 다 불만이 주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는 사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를 길거리 세울 수도 없고, 기본시설이 안 갖추어지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다 등등 기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업체들이 우리가 집단적으로 나가야 서울시가 정신을 차린다 이런 불만들을 다 토로를 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産業振興財團이, 지금 産業振興財團 업무보고에 잘못했다 라고 하고 반성해야 될 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겠다 라는 것 단 한 마디라도 있습니까? 모두가 잘 했고 실적만 보고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고 미흡한 점은 뭐였고 잘한 성과는 뭐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어

떻게 개선할 계획이다 라는 것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단 한 마디도 잘못했다 라는 게 없는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을 충분히 중간점검을 하셔서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는 자세부터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부터 갖추시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5월 3일에 개관을 했는데 실질적이고 도움을 주는 체제 자체를 갖추는,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내용을 지원해야 되는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전시실에서 만화·애니메이션 전시 및 행사 4회, 창작만화 활성화전 7회, 한국시사만화전 1회, 영상관에서는 센터 개관행사 외 23번의 행사를 했고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공동주최 등, 그러니까 각종 행사만 수십 차례 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를 행사하려고 만들지 않았잖아요? 행사보다는 행정에 중심을 두고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는 것에 대한 연구와 계획, 이런 자세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전시적인 애니메이션센터 운영, 전시적인 행정에 지금 정치인들보다도 더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들 운영합니까?

그리고 공용기기 장비보강이라든지 교육실 운영 DB 구축이나 또 환경조성, 이런 데는 환경 조성하는데 8,000만원밖에 예산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장을 위한 행사, 또 행사를 위한 행사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들에 대해서 제작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시나리오 작가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는, 그리고 배출해서 그분들이 애니메이션의 원고를 창의적으로 제대로 써낼 수 있도록 하는 육성이라든지 신인작가를 발굴하고 키워주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업체 중에서 부도업체 현황을 보면 97년부터 99년 10월말 현재 운전자금 35억 6,700만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34개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잔액이 10억 6,268만원이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6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대출잔액이 10억 274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서울시 자체 리스크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행에 손실책임을 지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강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부실대출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복대출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중복 대출해 준 업체가 부도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혜를 주었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로비를 받아서 부당한 업체를 지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체를 지원하고 선정하는 노력들이 내부적으로 부단하게 되어야 이 사업들이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실·창동전시판매장에 대해서 鄭圭鎭 委員님도 아주 좋은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쪽을 다 가봤어요. 그런데 가격의 문제도 그렇지만 전시내용의 수준이 아주 낮아요. 심지어 땡처리 같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마구잡이로 한다든지 또 싸구려 80% 세일, 옷 같은 경우에는 단돈 만원 이런 식으로 써 있던 전시를 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중소기업을 위한 전시판매장이고 중소기업을 위하는 것입니까? 부도난 업체들 물건 싸게 갖다가 전시하라고 전시장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전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産業振興財團에 우선 권고하는 것은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들을 DB로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인데 각 분야별로 의류업체, 가전제품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한데 벤처기업까지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제품의 질이 높고 재무구조도 건전하고 비전이 있다고 보여지는 업체를 모두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자체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면 한 분야당 200개 정도 또는 내용에 따라서는 100개 정도의 DB가 구축되어 있으면 이런 업체들한테 프로포절을 낼 수 있습니다, 産業振興財團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취지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네 회사에서 언제 전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전시를 시켜야 전시의 질이 높아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올 때도 그러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하면서도 서울시에서는 과연 서울시의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모르잖아요. 어떤 업체들이 좋은 중소기업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실태조사나 파악도 없이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생색도 덜 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지원책과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그냥 보고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선전하다가 끝난다고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尙俊;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産業振興財團 代表理事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産業振興財團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고, 중식 후에 서울特別市 信用保證組合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04分 監査終了)

○出席監查委員

鄭韓植 張夏雲 吳尙俊 梁敬淑  
吳世根 李善宰 李容富 鄭圭鎮  
鄭鉉均 李亮漢 趙相勳

○專門委員

金東秀

○被監查機關參席者

서울産業振興財團  
代表理事 鄭貴來  
애니메이션센터팀長 崔銀敬  
벤처企業支援팀長 金善洪